

지역예술인 잔치 '대동제' 30주년 맞아 다양한 행사 준비

마산 '고모령'서 태동 선술집서 선후배 세배
음식 먹고 덕담 나눠 예향의 상징으로 남아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2017년 02월 02일 목요일

옛 마산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새해가 되면 세배와 덕담을 나누던 대동제가 30주년을 맞았다.

대동제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정연규)가 대동제 3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대동제는 지난 1988년 마산 수성동의 선술집 고모령을 출입하던 문화예술인들이 설을 맞아 선후배 예술인끼리 세배와 덕담을 나누던 행사에서 비롯됐다. 수성동 고모령, 서성동 고모령에서 열던 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롯데백화점 마산점 지하 2층 더 갤러리에서 열렸다.

올해는 지난달 31일부터 창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미협아트홀, 창동갤러리, 가등 등 창동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김병규, 강신형 씨가 대회장을 맡았다.



제30주년 대동제 개막 행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대동제운영위원회 측은 "대동제 30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민, 예술인이 함께 문화로 공감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정유년 새해를 활기차게 열고, 문화공동체로서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행사를 새롭게 재편해 그동안의 발자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모습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31일 오후 6시 창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에서 개막제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작고 예술인에 대한 묵념, 합동 세배, 김미윤·성낙우 전 대회장에게 공로패 시상, 축하 공연 등을 펼쳤다. 특히 대동제 30주년을 맞아 <대동제 30년사>도 500부 발간했다. 사진으로 엮는 대동제 30년, 특집 좌담, 에피소드로 푸는 대동제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미협아트홀, 창동갤러리,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2층에서는 미술, 사진, 시화 등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도 열렸다. 전시는 10일까지 이어진다.



▲ 지난 1988년 마산 수성동 선술집 '고모령'에서 1회 대동제가 열렸다. /대동제운영위원회

고모령을 추억하며 창동에 있는 '가등'이라는 식당을 임시 주막으로 삼았다. 이곳에서 시 낭송, 야담, 공연 등도 10일까지 진행한다. '가등'은 마산에서 교육자로 활동한 정재관(1934~1985) 문학평론가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오동동 문화광장에서는 '예술의 향연', 대보름 달맞이, 민속놀이 등의 행사를 연다. '예술의 향연'은 4일 오후 5시에 선유풍물연구소의 삼도사물놀이, 정영자의 민요, 판소리, 춤서리, 경남발레단의 춤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지신밟기, 달맞이공연, 기원제, 강강술래 등을 한다.

가등,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창동 거리 등에서는 대동제 기록사진, 마산 문화 시대별 변천 사진 100여 점 등을 전시한다.

강신형 대동제대회장은 "다시 창동에서 대동제를 열면서,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장을 펼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귀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시민사회부 기자입니다. 창원중부경찰서를 출입합니다. 노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댓글 0

폰트